국제교류와 융합교육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disciplinary Education
2022.06.30. 제2권 제1호, pp. 57-82
https://data.doi.or.kr/10.23047/korea-sire.2022.2.1.005

대학생 의사소통능력 관련 인식 조사 연구
- A전문대학 공대생을 중심으로

손경혜* · 박영미**

[요약]

본 연구는 NCS 직업기초능력의 하위능력 중 하나인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향후 수업의 방향성을 모색하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의사소통능력 수업의 학습자와 교수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의사소통능력과 글쓰기능력,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크게 다섯 가지 항목 아래 관련되는 질문 항목을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자는 전문대학에서 의사소통능력 교과목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하여 기초교양으로 전면 실시되는 과정을 겪었고, 지금은 선택교양으로 남겨진 상황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 영역을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단체 FGI를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중요해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또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5개 능력 중 특히 말하기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읽기능력이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자기자신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수준이나 소통 유형, 소통 방식에 대해 알고자 하는 희망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대학 1학년 때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능력 하위 5가지 영역에서 나머지 능력에 비해 말하기능력에 가장 기대치가 높았고 실제 희망치도 가장 높았고, 교수학습 방법면에서도 이론보다 피드백이나 연습 등을 통해 능력이 향상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의사소통능력의 수업 내용이나 방법 등 수업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NCS,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글쓰기능력, 전문대학 공대, 인식

* 동의과학대학교 강사, 제1저자
** 경성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ymparkk@hanmail.net
게재신청일: 2022. 05. 07, 수정제출일: 2022. 06. 10, 게재확정일: 2022. 06. 12.

Copyright © 2021. Korea Soc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각국의 정부는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대한민국도 1997년의 IMF 경제 위기 이후 여러 문제 중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다. 초창기 도입에서부터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이 발생하여 교육부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는 NCS를 활용한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이 제시하였고(배수현: 2017) 각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교양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과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배수현: 2018). NCS의 장점이 많지만 개별 교육현장에서의 적용과 학교 및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개발을 완료한 NCS는 1천 여종에 달하고, 최근에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NCS도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한다(연합뉴스, 2021). 특히 미래의 유망한 분야와 신기술 분야의 NCS 신규 개발 및 직무개선 등을 개발해오고 있다(뉴스핌, 2021).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이 늘고 있고(교육의 봄, 2022), 스펙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뉴스핌, 2021). 구직 활동에서 자신의 역량을 주장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자신의 역량을 입증을 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면 활동이나 교류가 최소화되고 비대면이 중심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인지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공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열 가지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능력이 2개 또는 3개 영역 안에 포함되어 중요함이 연구된 바 있다(배수현: 2018).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은 국가 경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미래 키워드의 중요한 자원은 바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인재를 키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자원은 ‘사람’으로 NCS 등 직무 능력 향상에 투자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BBS NEWS, 2021). 또한 학벌 없는 채용의 시대가 온다(교육의 봄: 2022)는 주장 아래 채용 방식이 바뀌면 학벌도 바뀐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 채용 종합 정보 도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신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채용 문화를 확산해 우리나라 교육에 봄을 이끌고자 하는 것은 NCS의 목적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신입생 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단체 FGI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향후 의사소통능력 수업 목표와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즉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교육훈련·자격에 NCS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기존의 국가직업능력표준(NOS)과 국가직무능력표준(KSS)를 통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밝히고 있는 NCS의 장점으로 첫째, 기업은 NCS를 활용해서 조직 내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를(채용, 배치, 승진, 교육, 임금 등)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취업준비생은 기업이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고 이에 맞춰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어 스펙 쌓기 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교수자(교육훈련기관, 교사, 교수 등)는 NCS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넷째, 국가기술자격을 직무 중심(NCS 활용)으로 개선하여 실제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준다.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을 일컫는다. 하위 영역으로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등의 영역이 있다. 이 10개의 하위 영역을 다시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또 나눈다. 처음 하위 영역 모듈을 살펴보면 10개의 하위 영역 가운데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아래에 넓게 두고 있어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무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능력임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성취 수준에 따라서 다시 상·중·하로 구분된다. '상' 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이고, '중' 은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이며, '하' 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으로 성취 수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의사소통능력은 다시 5개의 하위영역으로 다음과 같다.

<표 1> NCS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능력 구조

하위 능력	정의	세부 요소
문서이해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문서 정보 확인 및 획득 문서 정보 이해 및 수집 문서 정보 평가
문서작성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	작성 문서의 정보 확인 및 조직 목적과 상황에 맞는 문서 작성 작성한 문서 교정 및 평가
경청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음성 정보와 매체 정보 듣기 음성 정보와 매체 정보 내용 이해 음성 정보와 매체 정보에 대한 반응과 평가
의사표현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가 뜻한 바를 말로 나타내는 능력	목적과 상황에 맞는 정보 조직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전달 대화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
기초외국어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외국어 듣기 일상생활의 회화 활용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든 학교 교육을 직업훈련소의 직무 교육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리고 대학이 학문적 성취에서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려를 많이 듣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함양해야 하는 능력과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의 괴리가 큰 것과 교육 수요자 중심의 현대교육에서 도외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인재 양성과 재교육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교육에서 직업 문식성에 대한 교육을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당면과제를 안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직업 문식성은 결국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1].

이와 같은 움직이고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이다.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센터를 설립하고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의사소통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첨단기술 및

[1] 이에 앞서 직업 문식성(job literacy)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및 쓰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말한 바 있다(노명완·이형래, 2005a). 이를 직장 문식성(workplace literacy)이라고도 한다. NCS는 이러한 직장 문식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가지는 의미에서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의 변화로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통역량,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고차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의 함양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김명희, 2021)고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한편 NCS에서 제시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 연구를 통계적 방법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김영은, 2020). 그리고 모든 교과 수업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설계와 전략 및 적용(정지언, 2021) 등의 연구가 새로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의사소통능력의 새로운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편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설문조사는 부산시 소재의 A전문대학에서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능력 교과목을 수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수업은 전교생이 기초 필수로 운영되던 시기가 끝나고 계열이나 선택교양 2시간 2학점으로 진행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한 <의사소통능력> 교재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수업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글쓰기 수업을 공학계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의사소통능력 수업이 개설되면서 글쓰기 수업은 폐강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을 전교 학생이 필수로 몇 년 간 진행하다가 선택교양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렀다. 2021년 1학기부터 2022년 2학기까지 두 학기에 걸쳐 온라인설문을 개강 4주차에 실시하였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였다. 전체 183명 중 남학생 163명, 여학생 3명이고,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답안이 온전치 못하거나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17명은 제외하여 166명을 최종 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19세가 3명, 20세가 83명, 21세가 4명, 22세가 33명, 23세가 24명, 24세가 9명, 25세가 7명, 26세가 2명, 27세가 1명이다. 이 중에서 남학생의 경우 군필자가 76명이며, 군 미필자가 90명이다. 타 대학생활을 해 본 학생이 11명이고, 대다수 155명은 해 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학이 2년제부터 3년제와 4년제까지 있지만 A대학의 경우 공대생은 모두 2년 후에 졸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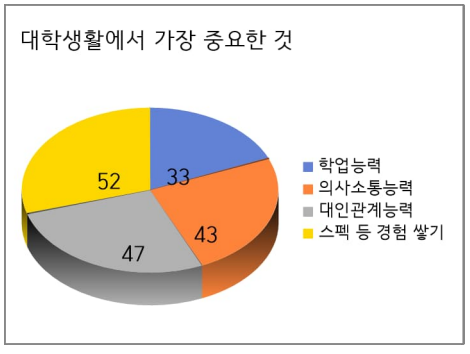
먼저 설문지를 구성하는 데 연구자 두 사람은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기로 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의논을 교환하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제외하여 최종 5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그 다음 세부적인 질문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 측면, 학습자-교수자 측면, 교과영역 및 교재 측면, 교수학습

방법 측면, 의사소통능력과 글쓰기능력을 관련한 측면 등이다. 의사소통능력과 글쓰기능력을 비교한 가장 큰 까닭은 의사소통능력에 글쓰기능력이 포함되지만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개강 첫날과 그 이후에 설명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능력이 글쓰기능력에 포함한다는 인식을 크게 못하고 있는 경우를 다년간 보아왔기 때문이다. 교수자나 교재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 설문에 응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개별적인 과거 학습 경험이나 상황 및 개인의 지식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자가 밝히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알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 설문지를 통해 반별로 무작위로 1명씩 뽑아 질문지의 오류 문제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학기 초에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학과별로 또는 반별로 설문 조사 시 단체 FGI를 통해 조사를 보완하여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부 서술형 설문 조사를 보충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조사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고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Ⅳ. 의사소통능력 인식 조사 및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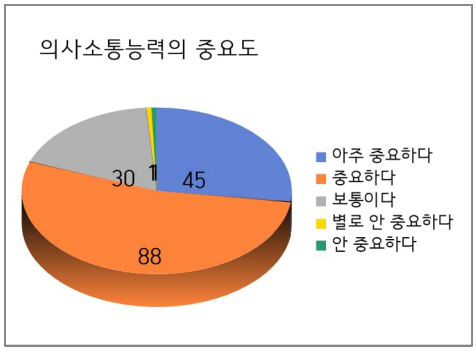
1.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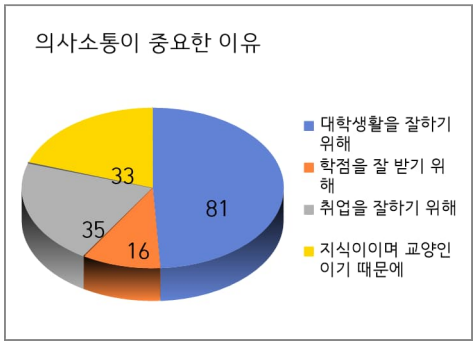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 학업능력보다 의사소통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 및 스펙 등 여러 가지 경험 쌓기로 대답하였다. 학업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19% 수준이었고, 의사소통능력이 24%로 학업능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도 27%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기타 항목에서는 30%로 학과에서 필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거나 여행, 아르바이트 등으로 조사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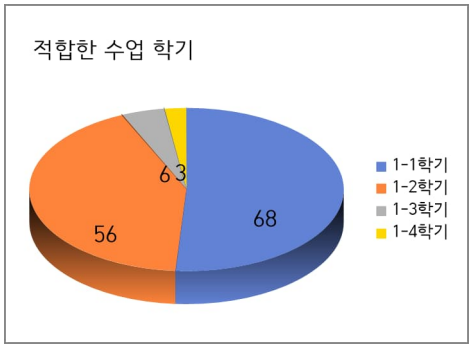
53%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다가 27%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80%에 해당되어 의사소통능력을 대부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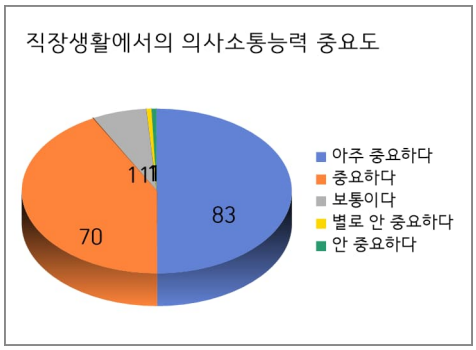
의사소통능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네 항목 이외에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열린 질문을 겸하였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대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가 49%인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21%, 이와 비슷하게 대학생은 지식인이며 교양인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갈동구다고 20%의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0%로 가장 낮게 나왔다. 그밖에 친구를 사귀기 위한 교류나 인간관계를 위해서라고 단체 FIG에서 추가로 덧붙인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의사소통능력 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132명이 그렇다고 답하여 80% 이상의 응답자가 답했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답하여 수업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수업을 듣는다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학기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1학년 1학기든 2학기든 1학년 때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학년은 단 9명뿐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을 1학년 때 배우면 대학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이 답했다. 2학년 때에는 취업 때문에 바쁠 것이기 때문에, 또 전공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기 때문으로 자유 기술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2학년이 되면 취업을 위한 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의사소통능력 수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6명, 전공 공부에 바쁘기 때문에 10명,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7명, 의사소통은 꼭 배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가 9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도 전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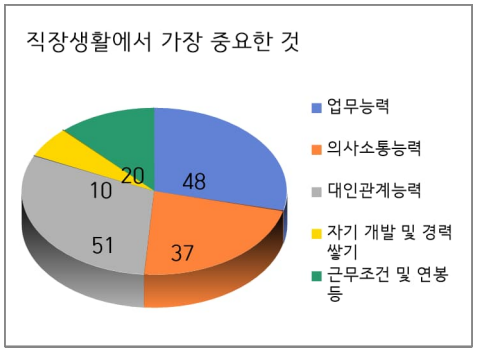


서술이라 생략한다. 이들은 대체로 의사소통능력을 학교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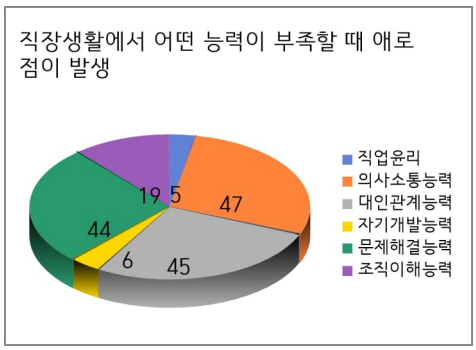
의사소통능력이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53명의 92% 이상의 압도적인 수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라고 생각한 11명의 개인적인 진술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나왔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근무조건과 연봉, 자기계발 및 경력 쌓기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인관계능력이 좋으면 직장생활에 어느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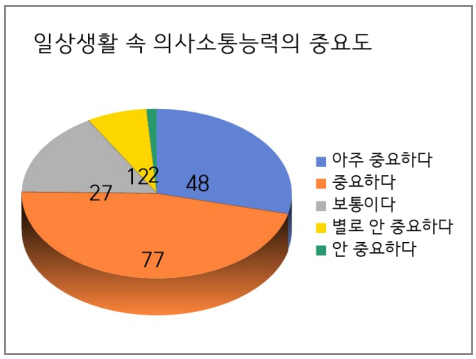


직장생활에서 어떤 능력이 부족할 때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 등의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 능력들은 직업기초능력 10개의 능력 중에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직장생활에서의 능력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능력 28% 47명,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7% 45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조직이해능력이나 직업윤리에 대해서는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대인관계능력으로 응답한 것과 상치되는 결과이다. 즉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각각 47명, 45명씩 응답하여 문제해결능력의 44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답하였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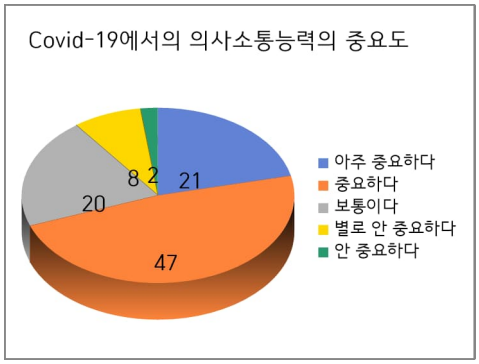


것은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인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할 때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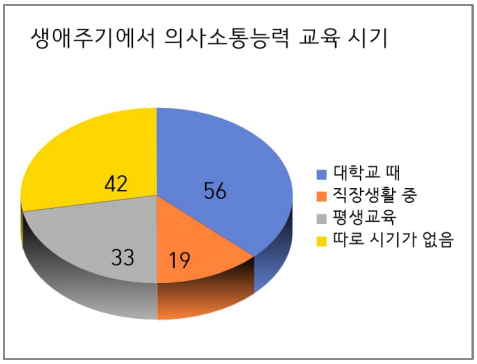
의사소통능력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76%의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학생들에 주관적인 대답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에서는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과 달리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으로 말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을 겪으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의사소통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중요하다가 48%, 아주 중요하다가 21%로 중요하다고 70%가량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20%로 나타났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낀 경우가 10% 가량 나왔다. 이는 그룹 FGI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보통이라고 한 경우의 학생들은 대면 상황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여 연구자는 개인 환경에 따른 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객관적인 조사를 못하였다.



생애 주기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육은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대학교 때라고 37%가 답했다. 그리고 평생 또는 따로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22%와 28%로 비교적 높게 나와 이는 항상 신경 써야 할 능력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애주기에서 의사소통능력 교육 시기를 볼 때 대학교 때 실시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사회생활이 시작되기 직전이기 때문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도 응답하였다. 오히려 직장생활 중에 의사소통능력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가장 낮게 나왔고, 따로 교육 시기를 특정하지 않거나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사소통능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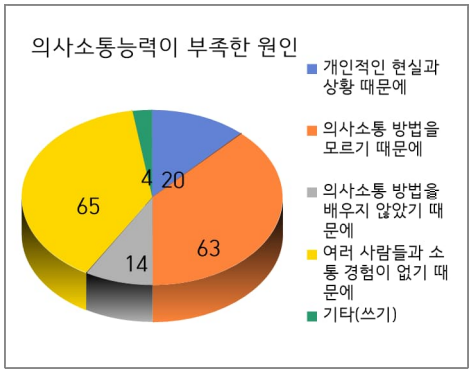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의사소통능력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학생 때의 교육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상 신경 써야 하는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자와 교수자

교육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인적 요인으로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에 대해 명확히 인지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 따로 제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학습자와 교수자에 대한 질문을 구분하여 질문하였는데, 먼저 현재 자신은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가 86% 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잘 못하고 있다고 2명에 불과하였으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대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없고, 의사전달을 잘 못하고,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화 상황에서 이중성이 생겨 착오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듣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내용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자세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자신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내용이 어려워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답하기도 하였고 평소 대화가 적은 것도 언급하였다. 대화가 적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때문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술한 것에 대해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공감능력, 살면서 필요한 능력, 서로 대화하는 것,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소통이 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방법, 없어서는 안 것 존재,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원활한 대화, 말하기·듣기·쓰기, 의사표현, 다른 사람과 의사를 표현하고 경청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등으로 서술하였다. 정리하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키워드는 ‘전달, 교류, 소통, 대화, 공감, 경청, 기본적인 필수능력, 대인관계, 사회생활’ 등인 것이다. 이는 경청하고 공감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교류가 일어나며 이것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에서의 필수능력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들은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에 대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38%,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경험이 없기 때문에 39%로 비슷하게 나와 의사소통 소통 방법과 소통 경험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밖에 개인적으로 처한 현실과 상황 때문에 20%, 의사소통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외의 의견으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이 별로 없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등으로 응답하여 이들 네명은 실제 개인적인 현실과 상황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추가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3명의 38%에서 67명으로 40%의 학생들이 지금의 현실과 상황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리된다.

의사소통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불편함 또는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15% 25명은 있다고 답했고, 대다수 85% 가량의 141명은 없다고 답했다.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의견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툰 적이 있다. 말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다시 정정할 때가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가끔 말실수가 있고, 단어의 문제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말에 뜻을 잘 못 알아들은 경우, 또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진술하였다. 학습자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에서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143명이 답한 것과 큰 차이가 없고 이들은 스스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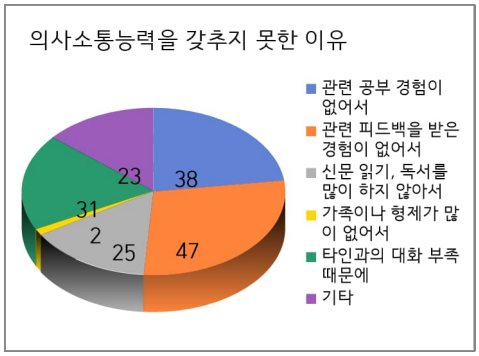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이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자주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42%의 70명은 그렇다고 답했지만, 58% 가량의 9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바로 위에서 질문한 것과 대비하여 살펴볼 때 불편함이나 피해를 보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직접적인 큰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신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에 대하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55% 가량의 91명, 나머지 그렇지 않다는 75명의 45%로 응답하여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는 것의 서술 질문에는 친한 친구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방

법을 찾거나 혼자 그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밖에 드물지만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와 책을 찾아 읽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현재 대학생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진단으로 86%의 142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4%의 24명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진술을 살펴보면, 말을 한 후나 글을 쓴 후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공부 경험이 없어서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어서가 세 번째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유로 의사소통과 관련한 피드백과 공부, 경험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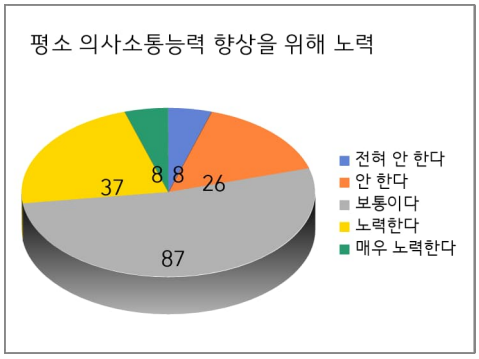
이어서 만약 의사소통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의사소통 관련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가 2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 능력과 관련한 공부 경험이 없어서가 23%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부족 때문에, 신문 읽기나 독서 경험이 부족해서가 각각 19%와 15%로 나왔다. 가족이나 형제가 많이 없어서는 2명밖에 대답하지 않아 가족이나 형제의 많고 적음은 의사소통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유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통계는 다음고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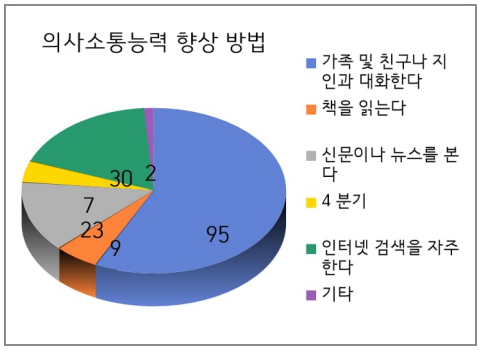
한편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선택 항목에서의 사소통능력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체크하라는 복수응답에 대해 제시한 6개 항목 중에서 이들 모두가 의사소통능력이라고 생각한 학생이 8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말하기능력이 의사소통능력이라고 생각한 학생은 78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듣기능력이 67명으로 나타났으며, 듣기와 말하기 및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포함되는 대화능력이 의사소통능력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읽기능력 31명, 쓰기능력 25명, 기초외국어능력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이 이처럼 낮은 것은 의사소통능력에 읽기와 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소통능력과 그 하위 5개 능력을 첫 시간을 포함하여 3주 가량 수업하여 의사소통능력의 기본적인 사항을 배운 시점에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응답이 나온 것은 여전히 의사소통에 대해 문자언어의 영역보다 음성언어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복수응답으

로 말하기능력이 60명, 기초외국어능력이 50명, 듣기능력과 쓰기능력이 동일하게 31명, 이들 능력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읽기능력은 20명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평소에 노력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절반 이상인 52% 8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력한다가 22% 37명, 매우 노력한다가 5%인 8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22%로 26명이 응답하였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경우도 5%로 8명이 응답하였다. 이에 전체 FGI에서는 보통이라는 의미에 대해 질의한 결과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의식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적극적인 노력을 동반하는 경우는 27% 가량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는가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가 5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책을 읽는 경우가 6%, 신문이나 뉴스를 본다는 14%, 취업을 대비 등을 위해서 전문 잡지나 전문 서적을 찾아 읽는다가 4%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예능을 보거나 유튜브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웹툰을 통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노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 대화를 나누는지 또 그 행위가 자신에게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연구자의 부족이며 이에 대해서는 또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인지, 단순히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인지, 의사소통의 노력을 위해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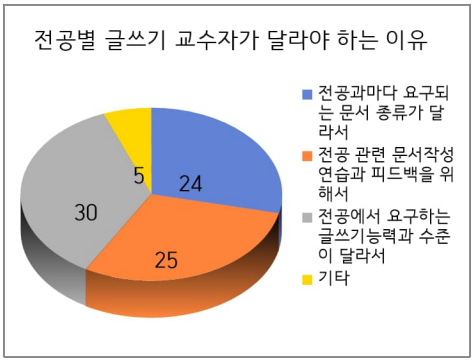
끝으로 의사소통을 잘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에 그렇다가 19% 32명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가 81% 135명으로 나타났다. 문제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이유로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종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또

서비스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만 일을 잘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부족 때문에 힘든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 답하였다.

다음은 교수자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응답이다. 먼저 의사소통능력 수업을 친숙한 전공 교수님과 외래 전공 교수나 전문가 중 누가 수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전공 교수님이 80%가 조금 넘는 13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학과 내 교수님은 19%인 31명으로 낮게 나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능력을 전문가가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두 항목에 대해 각각 체크하더라도 이들 두 그룹의 교수자 중 누가 지도하든 관계없다는 응답은 45%인 75명 응답하였다. 절반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둘 다 관계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능력 전공이나 전문 교수가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2].

의사소통능력 중 문서작성능력과 관련되는 글쓰기 교수자는 글쓰기 전공과 관계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경우는 33%인 55명,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67% 111명으로 응답하여 특히 글쓰기 부분은 전공자가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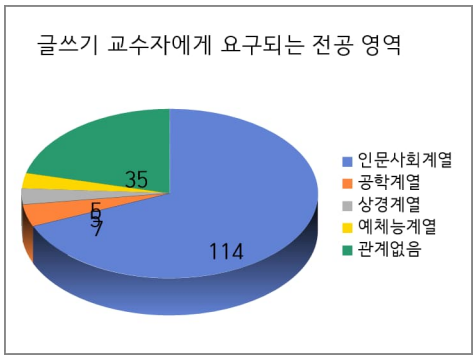
그리고 대학의 전공과별로 글쓰기 교수자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가 45% 74명, 아니오가 50% 83명으로 나왔고, 모르겠다는 5% 9명이 응답했다. 교수자가 달라야 하는 이유로 전공마다 요구하는 문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 자신의 전공과별 교수자가 잘 가르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전공에 관련되는 문서작성 연습과 피드백을 위해서, 전공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능력과 수준이 다르므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전공과별로 글쓰기 관련 교수자가 다르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모든 전공에 맞는 글쓰기 교육이 가능할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었고, 기본이 되는 주요 내용만 잘 가르친다면 응용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글쓰기 관련 교수자가 달라야 된다고 체크한 학생들 절반인 83명의 경우만 별도 질의한 결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능력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36%, 전공과에서 요구하

[2] 이 질문의 의도는 많은 전문대학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개설하고 있지만 국어와 관련된 전공자가 가르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시수라든지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학과의 전공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질문 항목으로 선정한 것이다.

는 문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28%, 전공에 관련되는 문서작성 연습과 피드백을 위해서가 30%로 응답하였고, 기타 의견으로 6%가 나왔다. 기타 응답에는 전공 교수님이 교양 교수님보다 자주 만나고 더 친근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와 개인적 성향의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공에 따른 특화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의사소통능력 교수자가 갖춰야 할 전공 영역에 대한 응답으로 69%인 114명이 인문사회계열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이 관계없다가 21%인 35명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 4% 7명, 상경계열 3% 5명, 예체능계열 3% 5명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로 답한 학생들은 자신이 공대이기 때문에 공대생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말하였고, 상경계열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 것 같아서, 또는 필요할 것 같아서 등으로 다소 막연한 이유를 밝혔고, 예체능계열도 상경계열과 비슷한 이유 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로 대답하였다. 따라서 글쓰기 관련 전공자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먼저 의사소통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의사소통능력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 같은가에 대한 복수 응답으로 말하기능력이 104명, 의사소통 방법이 105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듣기능력이 83명, 의사소통 연습이 73명, 쓰기능력이 66명, 읽기능력이 51명, 기초외국어능력이 49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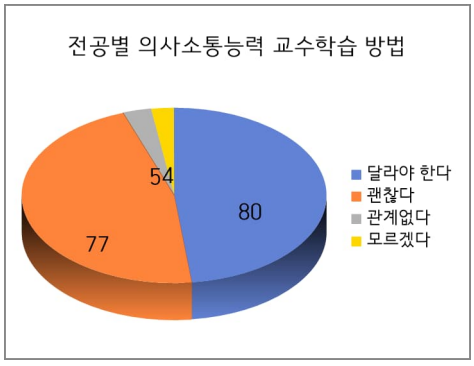
앞장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여전히 읽기가 가장 낮게 나왔고 쓰기와 듣기도 그 뒤를 이었다. 즉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을 말하기능력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수업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음성언어의 영역인 말하기와 듣기 중에서 듣기보다 말하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 대학 수업이다 보니 의사소통 방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사소통 관련 연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대학에서 의사소통능력 관련 수업을 듣는다면 15주 한 학기에서 주당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55% 91명이 한 학기 두 시간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한 시간은 29% 48명, 세 시간은 7% 11명, 두 학기 이상은 단 1명으로 나타났고, 9% 가량 15명은 모르겠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 수업을 한

학기 두 시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웠으면 하는가에 대한 복수 응답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을 확인했으면 좋겠다가 5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9명이 부족한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였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 상황별로 실제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하기를 41명이 원했다. 그밖에 26명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을 원했고, 19명은 여러 문서의 실제 작성 연습을 꼽았다. 의사소통능력 시간에는 부족한 능력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받고 실제 상황별로 말하고 듣는 연습을 원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능력 교재는 그렇지 않다.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문서이해와 문서작성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 교육 내용과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조사로, 교수자의 역할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복수 응답을 고르는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8명만 복수 응답이 나왔다. 먼저 자신의 의사소통에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주는 것이 53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의사소통능력 관련 이론 설명을 잘해 주는 것이 48명, 설명은 최소화하고 의사소통 연습과 피드백을 많이 해 주는 것이 42명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화법과 쓰기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31명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관련하여서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수업 대상자가 1학년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에서 배우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자신의 의사소통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연습과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의사소통능력의 수업 방향성을 알게 해주는 의미 있는 조사로 판단된다.



전공과별로 의사소통능력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48%로 80명으로 절반 가량이 그렇다고 한 반면에 46% 77명은 그렇지 않다로, 관계없다는 3% 가량 5명, 3% 가량 4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고 응답한 이유는 전공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우기 때문에 전공에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5개 능력을 지도할 때 교수학습 방법이 각각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51%ˆ가 달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0%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의 하위 항목을 각각 지도할 때의 교수학습 방법을 질의한 것이다. 교수자가 달라야 한다고 한 경우는 각 영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교수학습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였다. 특히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거의 10%에 가깝게 나타나 지도의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리라 본다.

자신의 전공에서 의사소통능력 중 어느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복수 응답으로 말하기능력이 88명으로 다른 능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듣기능력이 34명, 기초외국어능력이 25명, 쓰기능력이 24명, 읽기능력이 18명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역시 읽기 능력이 중요도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공대 학생으로서의 전공 영역에서도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과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능력은 말하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의사소통능력 수업 진행 시 경청능력과 의사표현능력 교수학습 시 역할극과 같은 활동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70% 116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0% 50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역할극이나 상황극은 동료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으로 말하였다. 그리고 이론을 배우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고, 쑥스럽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역할극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다른 개인적인 성격이나 표현력의 부족, 쑥스러움 등의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룹 FGI에서 역할극에 찬성하는 학생은 상황을 설정하여 역할극을 하므로 도움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다.

의사소통능력 수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92%인 153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8% 33명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역시 자신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수업 과정이나 수업 후 학기가 끝날 무렵에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도 되기 때문으로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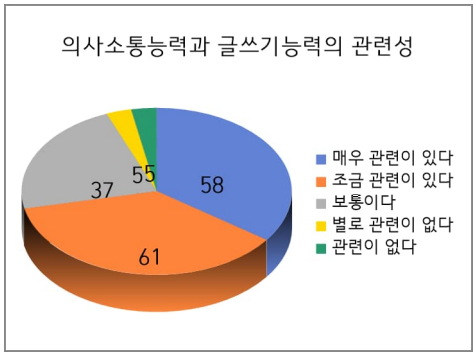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의사소통능력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60%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0% 66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대학 일반 교재로 배우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으로 56% 93명이 그렇다고 하였고, 44% 73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인 학생들은 이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판한 의사소통능력 교재를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컬러감이 없는 교재에 대해 예쁘게 편집되어 있는 타 교재와 비교했을 때 흥미가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용들과 거의 흡사하다.

우리 대학이나 우리 계열 및 학과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재로 배우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으로 5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1%는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서도 배우는 일반적인 교재로 배워도 무방하며 좋은 교재라면 어떤 것이든 관계없다는 말을 하였다. 교재의 분량은 100쪽 이상이 52% 87명이 응답하였고, 200쪽 이상은 13% 22명, 300쪽 이상은 0.18% 3명으로 응답하였고, 33% 54명은 관계없음으로 응답하였다. 관계 없다는 것은 교재의 학습 내용이 많고 적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너무 두꺼운 교재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교재가 주는 상징성이나 의미가 크지만 교수학습 환경이나 상황, 대상에 맞는 교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능력 교재의 내용 중에서 어느 영역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싶은가에 대한 복수 응답으로 51명이 말하기능력으로 제일 높게 나왔고, 조사 항목 모두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51명이 나왔다. 두 능력을 같은 학생이 체크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룹 FGI를 통해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역시 말하기와 관련되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또 다시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초외국어능력이 26명, 대화법과 쓰기도 각각 24명씩 나왔고, 듣기능력은 16명, 읽기능력은 8명이 응답하였다. 듣기능력이 낮은 것은 교재를 통해 수업 시간에 듣기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읽기능력은 여전히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말하기능력과 동시에 모든 능력을 도움받고 싶어 했고, 기초외국어능력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외국어능력을 이 수업 시간에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듣기능력과 읽기능력은 더 낮게 나타나 도움받고 싶은 영역에서 중요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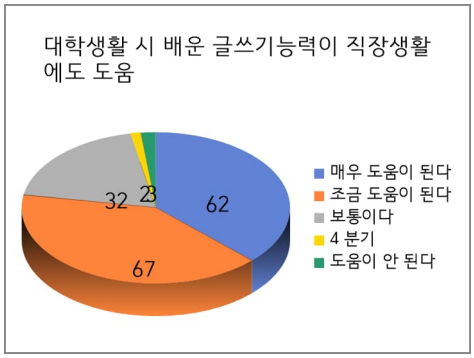
4. 의사소통능력과 글쓰기능력

의사소통능력이 글쓰기능력과 관련 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19명을 제외한 85% 가량인 141명이 관련이 있다고 답하였고, 11% 가량인 19명은 관련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4% 가까이 6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35% 58명이 매우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37% 61명이 조금 관련이 있다고 답하여 글쓰기능력이 의사소통능력과 119명인 72%의 학생들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22%는 37명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3% 5명은 별로 관련이 없다, 3% 5명은 관련이 없다고 응답하여



전체 6%의 응답자는 의사소통능력과 글쓰기능력이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전체적으로 28% 정도의 학생들은 큰 관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그 실행하는 상황에서 글쓰기 능력이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복수 응답으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할 때가 63명으로 가장 높고, 근소한 차이로 리포트를 작성할 때가 6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는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44명이고, 교수님께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 22명, 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때 22명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앞두거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시험 답안지를작성할 때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공대다 보니 서술형으로 문장을 쓰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제법 있었다.



대학생활에서 배운 글쓰기능력이 직장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조금 도움이 된다가 41% 67명, 매우 도움이 된다가 37% 61명으로 78%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19% 32명이 있었으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2명, 도움이 안 된다는 3명이 응답하였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직장에서의 글쓰기와 대학에서의 글쓰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실제 직장생활과 다를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답변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수 조사는 하지 못하였지만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그나마 글쓰기 관련 수업이 있었던 학교는 의사소통능력으로 바꾼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의사소통능력 수업 중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 글쓰기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복수 응답으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는 능력이라고 94명이 응답하여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리포트 작성이 52명, 공문서 작성이 42명, 공적인 이메일 및 안내서 작성 등이 21명으로 나타났고, 실험보고서나 실습일지 작성은 3명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심, 특성화 중심 대학으로 전문대학이 인식되면서 1학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한 글쓰기 능력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자신이 현재 대학생인데도 리포트 작성은 3분의 1 수준이 되지 않고, 또 실험이나 실습을 통한

일지 작성 등에는 별로 중요성을 거의 인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공문서 작성이 42명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리포트 작성과 10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만큼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의 실용적인 글쓰기인 리포트 쓰기도 중요하지만[3]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배우고 싶은 것이다. 이외에도 편지쓰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고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을 바르게 보내는 것도 있었다.

5.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의사소통 교실, 의사소통 상담, 의사소통 클리닉 등과 같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되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80% 134명이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찬성으로 나타났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겨우 20% 32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나 전공에서도 이러한 비교과 영역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19% 가까이 132명의 압도적인 수치가 찬성으로 나타났고 20% 정도 34명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신입생 때부터 졸업 때까지 언제든지 크고 작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질문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85% 141명이 더욱 압도적으로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5% 25명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아니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고 하거나 전공 공부나 자격증 취득에도 너무 바빠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거나 개인적으로 바쁜 이유도 있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피드백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라고 45% 74명이 응답하였고, 온라인이 27% 44명, 오프라인이 25% 41명으로 답했다. 나머지 7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무엇이 좋은지 경험하지 못해서, 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등으로 답하였다. 글쓰기가 비대면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학생들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피드백의 종류나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피드백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1시간이 49% 81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30분 정도는 30% 51명, 2시간이 14% 23명, 3시간 이상이 0.5% 8명으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으로 1명이 두 학기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비교과 프로그

3) 조사 대상자들이 공대생이니만큼 인문사회계열보다 글쓰기와 관련되는 수업이나 리포트 작성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연구자는 유추해본다.

램을 상시 운영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드백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NCS 직업기초능력 중 하나인 의사소통능력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전문대학 공대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 필요성, 의사소통능력 수업 관련 학습자와 교수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의사소통능력과 글쓰기능력,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크게 다섯 가지 항목 아래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 수업에 대해 실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그 의의를 찾고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의사소통능력 교과목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와 함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생들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인관계능력이 업무능력보다 높았으며 의사소통능력은 세 번째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점으로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게 나와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원인으로 방법을 모르고 소통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가장 높게 대답하였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없고 관련 공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또 이 수업은 관련 전공 교수자가 지도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공자의 수업을 원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통 방법과 소통의 경험을 의사소통능력 부족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사소통능력 전문가가 의사소통 방법과 의사소통의 경험을 학습자에게 충분히 또 다양하게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 시간에 교수학습 내용으로 말하기능력이라고 매우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은 듣기능력, 쓰기능력, 읽기능력으로 나와 읽기 능력이 말하기능력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능력의 종류도 이와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자신의 의사소통의 장단점 및 유형을 알고 이론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전공과별로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절반가량 나왔다. 실제 교재는 다섯 가지 능력의 비율이 거의 동일한 것과 비교하면 학생들의 기대치와 달라 향후 이에 대한 성찰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교재에서는 실제 사례는

많이 제시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개별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태이며 모든 전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외국어능력의 경우 학생들의 요구가 높게 나왔고 실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의사소통능력이 글쓰기능력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며, 대학에서 글쓰기능력의 학습이 직장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과 달리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글쓰기 능력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등 실용적 글쓰기가 가장 높았고 리포트가 뒤를 이었다.[4]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능력 수업 시간에 말하기능력에 대해 가장 기대치가 크고 희망하고 있지만 글쓰기능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의사소통능력 교재가 직장생활에 필요한 문서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또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클리닉센터 등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 역시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학생의 소속 대학에도 필요하다고 마찬가지로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신입생 때부터 졸업 때까지 상시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대답하였고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싶어하였다. 이는 개별 대학의 의지와 상황에 따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는 대단히 높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먼저 학생들은 1학년 때 의사소통능력을 수강하여 배우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아울러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온오프 형태로 언제든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수업을 전문에게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의사소통능력 부족의 원인을 방법을 모르고 경험이 부족한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자신들이 이 수업에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진단하고 연습하고 피드백 받기를 원하므로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능력 수업에서 교재에 나타나 있는 직장생활 중심의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계속 고집한다면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끝으로 한편 의사소통에서 말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요구도도 가장 높게 나온 반면,읽기능력이 가장 낮게 나왔다. 또 기초외국어능력의 경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요구도 높게 나왔지만 실제 교재에서는 언어능력을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자신을 바로 알고 이론과 연습 및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의

4) 이것이 공대생만의 특징인지에 대한 여부는 향후 다른 계열 학생 조사가 이루어져야 분석 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소통능력이 단시간에 향상될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면 대학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명희, 박현정(2021), **비대면 플립러닝 수업에서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 만족 요인.**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7(4),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1240-1272. DOI: 10.15833/KAFEIAM.27.4.1249

배수현 (2018). **NCS 직업기초능력을 활용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이벤트컨벤션연구, 14(4), 239-258. DOI: 10.31927/asec.14.4.13

이재형 (2016). **직업 문식성 신장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교육 연구-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98. DOI: 10.21793/koreall.2016.98.369

권예진 (2021). **포스트 코로나 신 핵심 자원은 '사람'...NCS 등 직무 능력 향상에 투자해야**. BBS NEWS, 2021.07.26.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539.

반진욱, 문지민 (2021). **취업 전문가가 강조하는 新채용 시대 꿀팁...필기보다 '직무 경험' 더 중요.** 매경ECONOMY, 20210907. https://www.mk.co.kr/economy/view/2021/863718.

이영재 (2021). **NCS가 뭐길래...직무훈련에 도입했더니 퇴사율 40→10%로 감소.** 연합뉴스, 2021.07.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64200530?input=1195m.

정성훈 (2021). 김진실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스펙보다 경험...경험노트 만들어라"** . 뉴스핌, 2021.08.07.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806000794.

교육의 봄 홈페이지. http://bombombom.org/.

NCS 직업기초능력 홈페이지. https://www.ncs.go.kr/th03/TH0302List.do?dirSeq=152.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mmunication 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 A junior college of engineering students

Son Kyong Hye(a lecturer,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Park Young Mi (an assistant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erception of communication capability which is one of the sub-competencies of NCS vocational substructure basic competence, and then seek the direction of prospective courses. To do this, the researcher conducts a non-face-to-face survey by creating five questions under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students and educator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classes, contents and methods of curriculum and teaching and learning,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writing skills and operation of extracurricular programs. This researcher has been teaching basic education even before the communication skills curriculum was created in college, now, in a situation where communication skills have become selective education, it is intended to grasp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about communication skills for first grader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survey area in more depth through group FGI after conducting an online survey by dividing it into several items. As a result, students felt that communication skills became motktkre important through COVID-19. Among the bottom five communication skills, speaking skills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reading ability was recognized as the least importa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trong hope to know about the level of communication ability, type of communication, and method of communication about oneself. In addition, they recognized that communication skills should be learned in their first year of college, and hoped to be operated at all times as a non-disciplinary program. In particular, in the bottom five areas of communication skills, the expectations and actual hopes for speaking skills were the highest compared to the rest, and in terms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ey wanted to improve their skills through feedback and practice

rather than theory. These research result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operation of classes, such as the content and method of classes in communication skills, in the future.

Key words: NCS, basic vocational skills, communication skills, writing skills, vocational college engineering, awareness